

울산, 석유화학 수출입 “죽을 맛”

2월 컨테이너 처리량 30.5% 감소 ...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침체

울산 및 온산공단 석유화학기업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울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2008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.

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, 2월 울산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는 2만3307TEU(1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)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30.5% 감소했다.

울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08년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개월째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.

2008년 10월에는 3만1371TEU로 2.4% 감소해 1997년 IMF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물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.

11월에는 2만4944TEU로 25.6%, 12월에는 2만5000TEU로 32% 감소하면서 사상 최고의 감소폭을 보여왔으며 2009년 1월에도 2만3113TEU로 24% 줄어들었다.

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“울산·온산 석유화학공단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울산항을 통한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었다”고 분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31>